

사슴의 위생관리

성 유 석
양생동물병원원장

1. 사슴 사육의 개요

(1) 우리나라 사슴의 사육사

사슴은 녹용을 위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육하여 왔다고 전하여 오고 있으나 확실한 문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바로서는 1643~1715년 홍만선이 엮은 산림경제에 사슴에 관하여 약간의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존기간으로 미루어 사슴 사육의 기원은 최소한 1715년 이전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싶다. 즉 내용을 간략하게 수록한다면 어린 사슴을 택하여 나무로 울타리를 짓고 기르고 있으며 사람과 가깝게 하기위하여 사료를 주지않고 굶기면 사람을 따르기 쉽다는 말과 기록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야생상태의 사슴을 우리에 가두어 기르며 사람과 친근하게 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고 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록이 본격화 하기 시작한것은 뽕나무 하야도 해방이후의 일로서 1960년 이후 저명 인사들의 취미생활로 관상용 및 일신상의 보신으로 확산되어 오늘에와서 보통 농가의 고소득 양축 양록업으로 일반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재 양록농가는 6천여 농가에 10만 여두의 사슴을 사육하고 4,500kg의 생녹용을 생산하는 축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매년

25%씩 사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겠다. 사슴의 품종은 꽃사슴, 붉은사슴 엘크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사슴의 개요

사슴은 전체적으로 널리 분포되고 있으며 삼림지대나 초원에 무리를 이루어 군서 생활을 하고 있는 초식 동물로서 나무 잎 나무열매 풀잎 수초등을 먹고사는 초식동물이다.

사슴은 앞머리에 무기인 뿔(녹용)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 크기는 작은것은 토끼만한 것으로부터 말만한 것도 있으며 뿔 또한 30cm~300cm정도의 큰것도 있다. 뿔은 순록을 제외하고는 수놈에게만 극한되어 있으며 피부에는 많은 피지선이 있고 쓸개가 없으며 역할은 십이지장이 하고 있다. 단 사향노루는 제외된다. 임신기간은 5~8개월이며 수명은 10~25년 정도다.

수사슴은 사향노루와 고라니를 제외하고 앞머리에 무기인 뿔(녹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순록은 암수 모두 뿔을 가지고 있는것이 예외다. 이뿔은 전두골에서 나오며 혈액의 순환이 뿔의 끝까지 순환되며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을대를 벨베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녹용은 이때에 자른 뿔을 일컫는다. 이것이 차츰 각질화되면서 완전히 굳어지면 이를 녹각이라고 하며 이때를 맞아 사슴은 발정기를 맞게

되며 수개월안에 뿔은 떨어지게 된다. 이를 낙각이라고 하며 새로운 뿔(녹용)이 다시 나오게 된다. 새로운 뿔이 자라는 기간은 3개월이 걸리며 이경우 고환에는 정충이 형성되지 않으며 녹각을 형성하면서 부터 정충의 형성은 활발하게되며 낙각이 되면 정충의 형성은 소멸된다. 이렇듯 성홀몬은 뿔의 성장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녹각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실용화 단계화 되었음을 제시하고 싶다.

(3) 앞으로 우리나라 양록업의 전망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사슴중에서 현종다고 인정되는 사슴 품종은 꽃사슴, 붉은사슴 엘크등 3종류로 보고있다. 그중 꽃사슴은 번식능력이 좋고 기후에 잘 적응되어 있으나 녹용의 생산능력이 낮아서 점차 대형종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근자에 많아지고 있다. 즉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큰 투자를 해서라도 대형종인 엘크를 사육하려고 무리를 하는 사육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다.

녹용수입 관계는 1980년 이래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련 중국 뉴질랜드 기타 외국으로부터 3000억원 이상의 녹용이 수입되어 왔으며 국내 공급량 또한 점점 증가일로에 있다고 보겠다.

근래에와서 서구에서도 사슴에 관한 연구 및 약품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고 연구하고 있으며 녹용이 값비싼 영약으로 인식된 자체시장인 우리나라로 크나큰 기대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실정하에 오랜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사슴과 녹용의 가격이 국제 가격과 엄청난 차이

때문에 근본적인 생산 수급대책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농산물 수입 개방 자유화로 볼때 우리나라의 대체 산업은 양록업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사슴 사육 전망은 한마디로 매우 밝다고보며 또한 사슴수입이 자유화 되더라도 사슴 사육을 하겠다는 농가의 응답이 50%이상이며 경제성이 높은 엘크 사슴의 사육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위해서도 계속 사슴사육의 전망은 밝다고 보겠다.

2. 사슴의 위생관리

(1) 녹혈세균감염 오보에 의한 국내영향

1991년 8월 2일~8월 7일 사이에 국내 사슴 업계에 일어난 메스콤의 특정 동식물 오남용 문제를 주제로 야기된 영향은 우리나라 양록업계에 크나큰 충격이었다고 보겠다.

이로인한 국내의 양록업계는 크나큰 시련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고 본다. 아울러 많은양의 녹용과 녹형의 판매가 중단 하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사슴의 분양시기에 전일과는 달리 한산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또한 정부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1992년 사슴 수입개방은 2중 3중으로 양록 40년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보겠다.

최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크나큰 과오로인한 곰생체 쓸개즙 채취에 의한 사회의 문제화된 동물확대를 녹용채취시 부산물로 생성 얻어지는 녹혈에 까지 녹혈세균 감염의 오도는 6000여 농가의 불

안감은 아직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다.

허나 이를 거울삼아 우리의 양륙업을 알차게 발전 시킬수 있는 계기로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더욱더 우리나라의 양륙업을 발전 육성하도록 우리모두 노력할 것을 빌어마지 않는다.

1) 성수기 및 비위생적으로 녹혈을 채혈하는 경우

사슴사육은 녹용을 생산 위주로 사육하는 것이며 부산물로 얻는 녹혈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특유의 사육 방식이라고 보겠다.

아울러 수사슴의 경우 녹용 채취시 매년 많은양의 녹혈을 채혈할경우 또한 비성수기에 채혈을 한다면 사슴 건강에 미치는 악 영향은 물론 동시에 녹용의 질적 량적 저하를 초래하게 됨은 물론 건강 악화로 인한 질병은 한마디로 세균학적 문제로 파급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말하고 싶다.

결국 사슴의 건강 악화는 노쇠현상 더 나아가 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우크므로 우리는 모두 함께 이를 배재하여야만 하겠다고 보겠다.

2) 비위생적으로 채혈한 사슴의 문제점

- ① 체기능 저하로 인한 악성 빈혈은 사슴의 노화 현상이 뚜렷하다 심하면 폐사함
- ② 다량의 혈액 채취는 수사슴의 경우 질적 량적 저질의 녹용채취로 경제적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 ③ 악성 빈혈에의한 이차적 내부 질

환은 후일 녹혈의 세균감염을 야기 시킬수 있다.

- ④ 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슴의 피해는 사슴의 노쇠 폐사 번식장애 등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수 있다.
- ⑤ 끝으로 비성수기에 채혈하는 방법은 사슴의 혈액학적 성분을 동일시 취급하고 있으나 녹용은 사슴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산물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조건으로 계절적인 영향·건우기의 온습도 영향, 일조시간 등으로 이때를 벗어날 경우 녹용과 녹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⑥ 빈번한 채혈에 의한 혈관 자극은 혈관 벽을 자극 염증을 유발시키며 이로인한 혈액의 세균학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 ⑦ 절각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약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사슴의 폐사로 경제적 손실과 인체에 직접 미칠수 있는 약품 남용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
- ⑧ 채혈된 녹혈을 먹기위해 첨가하는 민간약제 및 식품 첨가제는 오늘의 현실점에 생각하여 볼 문제라고 보겠다.
 - 과다한 양의 술(알콜)사용.
 - 민간 한약제 과다사용.
 - 생약제 매약 과다사용.
 - 기타 식품 첨가 사용이를 녹혈과 함께 복용하였을때 개개인의 생체 특이반응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를

각 양육장에서는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 ⑨ 사슴 녹용채취시 가지치기는 외관상은 물론 직접 사슴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사슴 자체의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기형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이상 채혈에 의한 사슴 질병

- ① 악성 빈혈
- ② 번식장애
- ③ 이차적인 질병 다발

을 말할수 있으며 이로인한 사슴의 폐사는 오히려 더큰 경제적 손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실감하셨을로 믿는다.

4) 이상적인 사육방법

- ① 사슴뿔의 절각시기는

사슴의 품종, 연령, 영양상태, 기후 조건등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낙각이 시작하여 65~70이내 녹용을 절각 채취하는 것이 좋은 녹용을 얻을수 있다. 녹혈의 양은 일정량이 없으며 가장 적게 채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② 마취약의 선정 :

마취약으로서는 사슴에 가장 안전하며 우리인간이 녹용이나 녹혈을 이용할 때 가장 안전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슴의 경우 럼퐁 이외 마취약의 사용은 절대 삼가하여야 한다.

- ③ 녹혈에 희석하는 첨가제

고농도의 알콜 한약제의 첨가는

사용치 않는것이 좋다.

- ④ 1회이상 녹혈 채취는 사슴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므로 특히 번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는 절대 삼가는 것이 좋다.

- ⑤ 녹용 절각시 절각 장소를 지정 선정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므로 일차적인 세균감염을 막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다.(사슴 배설물의 제거 잔디밭조성 소독 철저)

- ⑥ 연 2회이상 건강진단 및 1회이상 기생충 검사 실시

- ⑦ 새로 입양된 사슴은 격리수용하여 검진후 합사시키도록 한다.

끝으로 사슴은 매우 경제성이 높은 동물이며 사슴의 폐사는 양록 가로서는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이라고 보겠다. 아울러 사슴 사육의 제일큰 문제는 녹용의 절각시기와 사슴의 분만시기가 동시에 시작된다는 공통점이라 보겠다. 그러므로 녹용의 절각과 번식의 과오로 사슴이 폐사된다면 이의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제 기구 설치 준비와 효과적인 약품의 사용은 항상 고려대상이 될수 있으며 현실의 난극을 극복해 나갈수있는 것이라 보겠다. 아울러 사슴은 가축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중 가장 질병에 강하며 약품에 대하여 가장 적응력이 좋은 동물로 우리모두 사슴을 사육하는데 좀더 위생적인 방법으로 사육한다면 오늘의 이난국을 무난히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